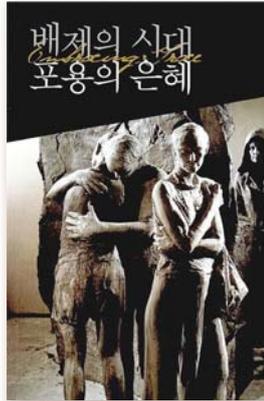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

김선일(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스캇 맥나이트 저 | 박세혁 옮김 | 아바서원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바울이라면 아마도 율법이라 할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라 답할 것이며,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종교행위라 할 것 같고, 본회퍼라면 값싼 은총이라 하지 않을까? 인간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복음의 정의를 밝혀내는 일뿐 아니라, ‘복음의 대항 개념’을 분별하는 일도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다. 물론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복음의 유익은 여러 모습으로 풍성하게 조명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루터에게는 이신칭의, 본회퍼에게는 제자도가 복음의 프리즘을 통과하는 더욱 뚜렷한 빛이 아니었을까? 따라서 시대에 따라 조명되어야 할 복음의 특정한 본질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경쟁 개념들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리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끌어안는 은혜’(embracing grace)다. 저자인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을 하나님

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끌어안는 것이라고 한다. 근래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권위 있는 성서학자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는 전작 「예수와 제자들이 매일 암송했던 것은 무엇일까」(The Jesus Creed, 살림사 역간, 2010)에서 예수 당대의 차별과 종교적 선민의식을 극복하는 복음의 스토리를 친절하게 풀어준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오늘날의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복음의 상급 개념으로 시종일관 ‘개인주의’를 명토 박아둔다. 상당히 놀랍고도 대범한 선언이다.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로 간주해야 할 것 같은 (또는 존중해줘야 할 것 같은) 개인주의가 복음의 반대라니! 예사롭지 않은 이 선언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인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가 풍기는 복음의 관용적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도대체 개인주의가 왜 복음과 대척점에서야 하는지가 더욱 궁금해진다.



복음의 관계적 정의

저자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복음이란 다른 이들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15) 좋은 단어들 이 나열됐지만, 사실 통념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던 방식과는 층위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복음은 익히 들어왔고 지금 이 순간도 극히 소중하다. 또한 불의한 구조를 변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음도 이제는 신학적 스펙트럼을 넘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고, 또한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라는 주장도 점점 더 반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처럼 익숙한 이해들과 달리, 스캇 맥나이트의 복음에 대한 정의는 무거운 단어와 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확신과 헌신 등의 비장함도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 자칫 복음에 너무 인간미와 친밀성을 덧칠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는 이러한 층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다른 질감을 접하게 해준다. “복음은 우리가 승인해야 할 관념 목록이라기보다는 연주해야 할 음악과 같다.”(19) 복음은 선포인 동시에 실천이다. 아니, 이제 복음은 우리가 살아냄으로써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울림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저자에게 실천은 복음의 사활을 거는 사항이다. “우리는 복음을 실천 할지 실천하지 않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27) 이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심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의 정의는 뭔가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생수의 맛봄과 같다. 복음은 은혜의 순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여기서 인격성과 사회성을 제거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무관심한 개인주의는 복음을 대적한다.

에이콘이란?

저자가 복음을 실천적으로 제시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두드러지고 독특한 논증의 틀은 ‘에이콘’(Eikon)이라는 개념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관계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통해 삶의 모든 관계(하나님, 자신, 다른 이들, 사회,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이콘으로서의 존재적 사명을 지녔다. 에이콘이라는 호칭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메시지가 되리라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에이콘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 또한 바로 개인주의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남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는 복음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포용적 은혜를 거스르는 것이다. 저자의 핵심 논증은 명료하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도록 지음 받았다면, 개인주의는 우리의 본질 자체를 공격하는 셈이다.”(43) 반대로, “복음 자체의 목적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90) 따라서 복음을 말하고 실천하려면 은혜의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최고의 복음 변증은 “은혜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 그 복음을 굳게 붙드는 공동체의 능력에 있다.”(93)

에이콘으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조명은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비춘다. 창세기에 잘 나타나있듯이 창조하셨고 관계를 맺으셨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았다. 저자는 창조활동과 관계맺음, 안식이 우리를 나머지 피조물들과 구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에이콘의 고유한 활동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토후 바-토후’로부터 질서와 배려와 심을 제공하는 일상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즉, “요리를 하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부엌 바닥과 식탁을 토후 바-토후로 만들 때마다”(53) 우리는 창



조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에이콘의 본연은 관계와 일상 속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저자는 이를 삼위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순환 관계인 ‘페리코레시스’에 인간이 동참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에이콘으로서의 전망은 우울하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개인주의적 독립을 추구하여 그분의 형상인 에이콘이 부서졌고 복음의 이야기도 파괴되었다. 따라서 무너진 에이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삶의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과 기대는 영원히 반복되는 희망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죄를 인격화한 저자의 시각은 참신하고도 심오하다. 죄가 죄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연합, 다른 이들과의 교제에 돌아가지 않고 이를 세속적 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73). 그럼에도 이 에이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 저자는 부서진 에이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의 또 다른 본질을 설명한다. “복음이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을 통해 부서진 에이콘들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과 연합하고 다른 이들과 교제하도록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삼위일체이시며 상호 위격적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142)

회복된 에이콘이 주는 두 가지 유익

이렇게 인간을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포용에 응답하는 회복된 인간의 에이콘이 지니는 함의는 풍부하다. 복음의 사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의 회복뿐 아니라, 구조적 불의를 종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통전적 사역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먼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뒤 점차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순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한 뒤, 이를 세상-공동체-개인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보너스로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순서는 세상에서 시작해 공동체와 개인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를 개인주의적 질서가 아닌 에이콘적인 질서라고 한다(204).

궁극적으로 저자는 에이콘은 인격이며, 에이콘의





회복은 인격들이 회복되어 서로 교제하게 됨을 말한다. 따라서 속죄는 하나 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 연합하고 다시 교제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 선교 지향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38)

저자의 논의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일상성이다. 그는 에이콘의 회복이라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지금 여기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십자가로 빠르게 넘어가고픈 유희 속에서 성경이 기나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기독교 세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새로운 바람은 교회가 그 뒷마당에서부터 풀뿌리 차원에서 통전적인 복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교회는 그 지역과 밀착된 이슈를 가지고, 즉 이웃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익히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풍을 가거나 담소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밀착될 때 이웃들의 필요를 알게 되며, 머지않아 거리의 이름 없던 집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살아 숨쉬는 가정들이 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역사회는 공동체들을 만들어 내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한다.”(109)

일상성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포용의 은혜로 회복된 가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포용의 은혜 이야기는 부서진 틈새가 넓고도 깊은 에이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한다. “고통이 극심하고 상처가 깊은 부서진

에이콘을 닦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게 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214) 그는 절묘하게도 이 점을 가정의 정황에서 얘기한다. 사실 포용의 은혜를 실천하고 에이콘의 회복을 맞보기에 가장 힘겹고, 가장 어색한 곳, 그러나 실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가정 이 아니던가?

이쯤에서 저자가 계속해서 포용의 은혜와 대비시키는 ‘토후 바-토후’가 주목된다. 이는 창 1:2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의 창조에 비추어 볼 때, 이 토후 바-토후는 세상에 관심이 없고, 타인을 배제하며, 개인의 유익과 안녕에만 몰두하는 개인주의의 행태다. 저자는 배타주의자들은 자신을 개인주의자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배타주의자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선교적 신앙 공동체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닮은 창조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 맞서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한다.”(167)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서술이 아닐까?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적나라한 실상이 아닐까? 나아가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무신론은 사실 개인주의라고 일갈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리는 자아에 함몰될 때, 에이콘으로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모두 잃게 되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자처한다. 이렇게 그들은 개인주의자가 된다.”(171) 무신론은 개인주의로 직결된다. 저자는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두 개념의 상호 연결된 폐쇄 회로를 들추어 낸다.

스캇 맥나이트는 고대의 유대교 전통에서 독특하게 솟아오른 예수의 복음을 탁월하게 조명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재능이 있다.



지금은 노던신학대학원(Northern Seminary)의 교수로 있지만, 오랫동안 노스파크대학교(North Park University)에서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과 기독교를 강의했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신약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현대인의 언어와 감응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이력을 형성해 주었다. 그의 개념 이해와 설명은 매우 신학적이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 가듯이 전개한다. 게다가, 각각의 신학적 깨달음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포용의 복음이 구체적인 인생들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적용도 잊지 않는다. 허나, 그의 맛깔 나는 신학적 이야기에 비해서 그가 적용시키는 예화들의 드라마적 스토리텔링은 다소 반전과 대비가 약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쨌든 그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개념들로 신약의 가르침을 재구성하고, 이를 오늘날의 삶과 접목시키는 보기 드문 신학적 스토리텔러다.

기독교 세계관을 위한 도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배제의 시대 포용의 은혜」는 단절과 분리의 위기를 겪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조명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 저자가 그토록 치열하게 맞서는 개인주의와 도시화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세계를 단절시키며 인간관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온갖 우울증과 자폐증이 무한 증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잠재력에 따라 인간을 계층화시킨다.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몸서리치는 공포의 현실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처절한 경쟁터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반상의 질서나 인종, 국가에 따라 배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자본에 의한 배제

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의 탐구와 방향이 자리해야 할 곳을 가리킨다.

이 책에 거는 기대는 바로 세계를 해석하는 틀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새로이 모색하게 해주는 촉매제로서의 역량이다. 또한 분석과 체계 정립의 세계관에서 복음적 실천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디딤돌 역할이다. 더 나아가 지적 명료화의 세계관 기능에서 정서적, 전인적 헌신을 일으키는 세계관의 재정립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는 성경의 빅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동행하는 길동무가 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대를 품는다면, 이 책은 분명히 세계관 연구와 열정에 살을 입히고 피를 들게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포용의 은혜로서 복음의 실체(reality)와 회복 중의 에이콘들이 어울리는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인간의 사유가 순전히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 전통, 공동체와의 교류로부터 형성된 것이라 보듯이, 기독교 세계관 또한 성경의 풍부한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참조하며, 또한 그 내러티브를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은 뒤, 기독교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아탑 안에서의 개인 연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풍부한 원천임을 자각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당신의 연구가 분리될 수 없음을 느낀다면, 제대로 읽은 셈이다.



김선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과 졸업하고, 미국 몰러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박사(Ph. D. in Practical Theology)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이다.